

대구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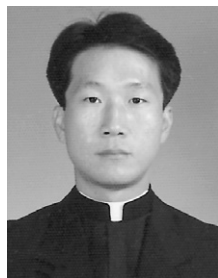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2010. 9. 19(다해) | 제1693호 |

주일의말씀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백명흠 바오로 신부
진량성당 주임



해마다 9월이면 순교자 성월을 지내며 신앙을 위해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교자들의 삶을 기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분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세계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한국 교회는 1784년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후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100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신유, 기해, 병오, 병인 4대 박해를 받으며 만여 명의 신자들이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금가항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된 후 이듬해 9월 16일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 하셨습니다. 순교 때 신부님은 큰 소리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갑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얻고자 하시면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이처럼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여 명의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 피로써 하느님을 증거하였지만 성인품에 오르신 분은 103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교회의에서 추진하는 124위

순교자 시복시성운동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성인품에 오르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순교

지금의 한국 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자 수 500만명, 성직자수 4천여 명, 수도자 수 1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를 믿거름으로 하여 우리 한국 천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여 그들의 신앙을 칭송하고 자랑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금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휴가철이면 주일 미사에 성당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날씨가 덥다고, 날씨가 춥다고 미사에 빠져버리고,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하느님을 떠나버리는 나약한 신앙. 우리들 가운데 아침, 저녁기도를 바치는 신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봉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이겨냄으로써 순교성인들처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말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참조

지혜 3,1-9 로마 8,31 L-39 루카 9,23-26

1. 경상도 지역 신앙공동체의 태동

문화홍보실

경상도 지방에 교우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790년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상도 지역에는 박해가 없었으므로 많은 교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경상도 산악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옮겨 온 교우들이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경상도 지역으로 이주했던 신앙 선조들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황일광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황일광은 백정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백정은 천민으로서 노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백정에게는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멸시와 천대만 받고 살던 황일광이, 하느님 앞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는지 쉽게 상상이 갑니다. 시몬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난 황일광은 경상도 지방으로 이주해서 교우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백정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생 남에게 대접받고 산 적이 없는 황일광은 교우들 사이에서조차도 천대를 받을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맞아들였던 경상도 교우들은 황일광 시몬의 본래 신분을 알고 나서도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를 주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로 대했다고 합니다.

뒷날 황일광 시몬이 붙잡혀서 문초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천당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나중에 가게 될 천주님 나라요, 하나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평생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 해 주지 않았는데, 오직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만이 황일광 시몬을 사람으로, 형제로 맞아 주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위신이 지배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옛적 우리 선조들은 이 경상도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백 년 이어져 오던 인습을 뛰어넘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비록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황일광과 같이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체념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느님 나라를 보여 주겠습니까?

※ 이번 주부터 새로 연재하는 “은총의 백년” 코너는 대구대교구의 백 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자취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입당 성가

285 103위 순교성인

화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220 생활한 제물

영성 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파견 성가

283 순교자 찬가

영성의 향기

:: 가난한 사람들

마더 테레사가 한 힌두교 귀족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 주시기 위해 빵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당신의 그 소중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즉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 받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마태오 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삶에 그대로 옮겨 실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이 굶주리셨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 되셨을 때 맞아 주었는지, 문맹자이셨을 때 가르쳐 주었는지, 혼자 되셨을 때 친구가 되어 주고 이해해주었는지, 사랑이 되어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가난한 이와 동일시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품위와 정의와 사랑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 냉혹한 외로움 속에 버려져 거절당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알아 볼 수 있습니까?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함께하는 사랑



독일 베를린의 뒷골목 한 모퉁이에서 한 거지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서투른 솜씨로 바이올린을 켜며 동전을 구걸했지만 소녀의 앞에는 골목의 꼬마들만 모여서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냉랭한 표정으로 자신을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고 기운이 빠져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신사가 다가오더니 소녀의 바이올린을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가 연주를 마칠 즈음에 되었을 땐 몇 겹의 사람들이 담을 이를 정도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며 돈을 던졌습니다. 젊은 신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바이올린과 돈을 소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거리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젊은 신사가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교구설정 100주년 맞이 도보성지 순례

- 일시: 10.2(토) 09:30, 성가양로원 출발
- 미사: 15:00(주례-조환길 대대오 주교)
- 코스: 성가양로원~가산산성~한티성당
- 문의 및 신청: 본당사무실

† 9.20(월)은 **해서인석(바오로)신부 5주기입니다.**

★ 모임 / 행사 ★

뿌에리칸 또레스 합창단 모집

-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 문의: 대구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 일시: 9.27(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제13회 창작생활자가 경연대회

- 예선심사: 9.30(목), 본선: 11.13(토) 19:00
- 문의: 3대리구청 사무실 634-0653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한마음 축제

- 일시: 10.2(토) 19:30, 구미문화예술회관
- 출연: 경북도립국악단, 대구 오페라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하석배, 최덕술, 이현, 박재연
- 주최: 5대리구청 사무실 054)468-5400

대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설명회(1차)

- 일시: 10.2(토) 15:00, 대건고등학교 대건관
- 대상: 중3 학부모
- 문의: 대건고등학교 631-9681

‘하늘위의 하늘’

예수성심시녀회 김마리아수녀 개인전

볼리비아 및 해외선교 기념마련

- 일시: 10.6(수)~11(월) 10:30~20:00
- 장소: 대백프라자 갤러리
- 문의: 620-5221~2

2010년 전국성령 대회

- 일시: 10.9(토), 성김대건기념관(남산동)
- 대회주제: 예수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 초청강사: 로버트 켄톤 Robert C. Canton
- 특별미사: 교구장직무대행 조환길 주교

★ 피정 / 성소모임 ★

사랑의 씨를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9.26(일) 14:00~17:00
- 장소: 하양수녀원
- 문의: 062)571-3004 / 010-5705-5004

말씀의 향기

- 내용: 마르코 복음을 통한 거룩한독서
- 첫모임: 9.28(화) 19:00
- 장소: 포교 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본원
- 대상: 모든 젊은이
- 문의: 010-8519-3431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기간: 9.19(일)~10.9(토)
- 대상: 만 60세 미만 남녀
- 문의: 원목실 650-4438, 4442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모집

-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문의: 255-1582(평일 14:00이후)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 외국협력대학 유학시 학점인정
- 이수후 공립학교 영어전문강사 응시가능
- 문의: 526-0121 (<http://tesol.cu.ac.kr>)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무부협의회

- 대상: 가톨릭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문의: 02-773-0102(www.ecaritas.org)

한티피정 의집 주방직원 모집

- 조건: 숙식가능한 55세이하 여자0명
- 서류: 이력서(사진부착), 교육자본 각1통
- 특가: 조리사자격소지자우대, 선착순채용
- 문의: 054) 975-5151

청년 프란치스코회원 모집

- 자격: 만35세이하가톨릭신자(결혼무관)
- 환영작: 9.25(토) 14:00
- 장소: 월배성당 내 프란치스코수도원
- 문의: 632-9800 / 010-7503-8852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9.27(월)~10.6(수)
- 문의: 043)260-5076

여성부인정 가정폭력상담원교육생 모집

- 일시: 9.27~12.20(매주 월) 9:30
-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환경위원회 명상 제초반 개설

- 개강: 10.5(화) 매주 화, 금 14:00~16:00
- 수강료: 6만원 2개월 (010-5250-3523)

선교, 나도 잘할 수 있다!

- 일시: 10.23(토) 10:30~16:30
- 장소: 계산문화관 3층 선교대학
- 지도: 이관석 신부
- 선착순: 50명 무료 신청
-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 안내 ★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일원, 이규엽, 이대섭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1.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시, 무연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군위묘원 성묘안내

추석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미사안내

• 일시: 9.22(수) 11:00, 장소: 군위묘원

순교자성월 신나무골 성지미사

이선이 엘리사벳 순교 150주년 기념

- 일시: 9월 한달(토, 일, 9.20-24 제외) 11:00
- 장소: 신동 신나무골성지 054)972-2014

※ 기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9월 20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공소후원회 미사	9월 25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밝은 눈 안과

원장 임흥식(리파엘) 장주희(엘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매상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늘 시원한 안과 의과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전용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7(치질 치료), www.hnangmuns.com

신경대우아파트 북문거리

백 신경외과 의원

척추 · 관절염 및 뇌 · 신경 전문클리닉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 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 · 골격질환

원장 / 전문의 백 윤 일 (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아가다 요양센터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복지옹구판매 및 대여

☎ 795-4242 / 815-2700

• 정성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고팔홍 (안드레아) · 박성자 (아카타)

결혼 정보 외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복순(오티리아)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보석 시계 전문점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 네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출구)

원장 채희갑 (바오로)